

黎明期前後

— 初期電氣事業에 대한 再照明 —

崔 漢 燮

17. 韓美電氣會社の 賣渡

(1) 賣渡교섭

지금까지의 記錄에 의하면 韓美電氣會社は 1904년중 美電氣會社は 1904년중 美貨 30만달러의 社債을 발행 각종 사업확장 및 시설개선등을 벌였으나 곧 다시 자금난을 겪게 되었을 뿐만아니라 1909년 韓日瓦斯가 가스製造시설을 기공함에 따라서 같은해 4월에 콜브란이 韓日瓦斯측에 韓美電氣의 賣却意思를 밝히고 교섭에 들어 갔다고 하였다.

즉 韓美電氣를 매각하게된 동기가 자금난과 경쟁상대인 韓日瓦斯의 창립에 있는 것으로 되어있다. 물론 이 두가지 객관적인 요인들이 중요한 동기가 되었음에는 틀림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보다 주요한 일은 콜브란 등은 당초부터 電燈 및 電車사업을 그들 스스로 永續할 뜻은 없었고 다만 이들 사업을 하나의 利權으로만 이용하려 했던 것 같다.

콜브란은 1897년 모어스가 京仁鐵道敷設權을 日本에 賣渡할 때의 모어스의 技師長이었고 1903년에는 콜브란과 보스트윅은 高宗으로 부터 서울市內의 上水道에 대한 特許를 받은 다음 1905년에는 이 特許權을 英國人에게 양도한 행적이 있다.

그리고 이미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漢城電氣에 대하여도 영업개시 3년만에 벌써 韓國政府에 매수하도록 압력을 넣은 사실과 그 과정에 나타난 일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日人들과의 賣渡교섭도 韓日瓦斯의 施設을 起工한 1909년보다 3년이나 앞서 이미 진행되었는데 이러한 사정들을 1906년 4월 18일자 皇城新聞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電社買收議) 漢城電氣會社를 日本人 資本家가 買收하기로 該會社 事務員 肯佛安氏와 協議中인데 姑未決定이라더라.

이 日本人 資本家가 누구인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 시기는 앞에서 既述한 바와 같이 日本人 재벌 澁澤榮一이 자본금 70萬元으로 서울에서 水力電氣會社를 설립할 목적으로 統監府를 거쳐 農商工部에 請願中이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曾彌寬治가 韓日瓦斯를 창립하기 위하여 서울에서 활동 중인 때인만큼 이들 두사람중의 한사람일 公算도 대단히 유력하다고 하겠다.

어쨌든 콜브란은 電氣事業 영업개시 初期段階부터 이를 韓國政府에 매도하고자 하였으나 실패하자 곧 다시 日本人에게 넘기고자 급급하였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콜브란은 賣渡에 급급 怪物 竹内가 幕後調整

그런데 이때 韓美電氣의 韓日瓦斯에 대한 賣渡교섭이 급진진한 것은 日人 竹内 綱의 주선에 의해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 竹内 綱은 당시 日本의 第五十八銀行의 銀行長으로서 高宗의 신임이 대단하여 京釜, 京仁철도 부설권 획득과 韓日議政書체결을 성공시킨 幕後人物인 大三輪長兵衛의 오른팔 구실을 했던 인물이었다(此項 在日史學者 姜東鎮씨의 「韓日80년」·1985. 8. 23일字 朝鮮日報 참조)

이처럼 당시 宮廷과 韓國政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던 竹内 綱과 콜브란은 또한 일찍 부터 각별한 친교를 갖고 있었는데 콜브란은 이 竹内를 통하여 1909년 4월 韓日瓦斯의 澁澤會長에게 韓美電氣의 매각을 의뢰했다.

竹内の 교섭을 받은 澁澤會長은 즉시 任員會議를 소집하여 협의한 결과

첫째는 日本의 國家的인 對韓政策上

둘째는 類似事業의 統一을 위한 企業經營上의 目的을 위해 買取기로 하고 價額과 支拂方法을 교섭했다.

콜브란은 賣却價額을 120萬圓으로 하고 支拂方法은 제 1차年度에 60萬圓 제 2차年度에 60萬圓씩 분할지불함과 동시에 계약체결일 부터 지불완료일 까지 未拂金에 대해 年6分の 利子を 지불할 것과 美貨社債 50萬圓은 買取者가 承繼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

韓日瓦斯는 이에 대하여 實査후에 評價기로 방향을 결정하고 白石, 久米, 岡崎등 세任員을 調査委員으로 구성하여 技師 2명을 대동하고 1909년 5월초 實査業務에 착수한 결과 콜브란의 요구 價額이 너무 비싸 買取에 難色을 표명하고 이 사실을 伊藤博文統監과 曾禰副統監에 보고 그들의 意見을 求한 바 兩人모두 可能的 희생을 지불 하더라도 日本의 國家政策上 買取할 것을 적극 中용함에 따라서 買取를 결정하고 法律上의 감정을 岸精一변호사에게 의뢰했다.

(2) 韓美電氣의 實態調查報告

前記한 韓日瓦斯의 白石直治, 岡崎遠光 久米良作등은 韓美電氣의 실태를 현지조사한 다음 1909년 6월 17일 조사보고서를 제출했는데 당시의 韓美電氣의 실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므로 다음에 그全文을 번역 소개한다.

〈實態調查報告書 全文〉

韓美電氣會社는 韓國 서울에서 電氣鐵道, 電燈, 電話, 電氣動力의 공급등 電氣一切의 사업을 獨占하는 企業으로서 1904년에 창립하였으며 資本金은 韓國皇室의 持分金 100萬圓, 現社長인 美國人 콜브란外 1명의 持分金 100萬圓등 合計 200萬圓이며 이밖에 50萬圓의 社債를 발행하여 總額 250萬圓으로 經營하고 있음

社長 콜브란은 同氏外 1명이 所有하는 株式 5000株 및 일체의 권리를 賣却할 意思가 있다고 하므로 지난번 그 代價를 問議한바 金 112萬5千圓에 賣渡하겠다고 함과 동시에 만약 賣買가 成立할 때에는 韓國皇室의 持分에 대한 代價는 自身이 預先하여 金 30萬圓으로 調整 承認을 받겠다는 뜻을 표명하였으며 현재의 社債 50萬圓은 買取者가 承繼한다는 조건이었으나 이 主張에 의한다면 韓美電氣會社의 財產 및 일체의 權利는 192萬5千圓으로 賣却處分되는 計算이 됨

前項의 提議를 받고 실제로 該會社의 財產 및 營業狀況을 조사한 바 營造物과 機械 器具는 多少 老朽磨損되었으므로 그 程度에 따라 評價한 결과 그 財產價額은 概算으로 87萬圓에 不過한 것으로 評價

되었으며 이 評價額을 그의 要求額 192萬5千圓과 對比할 때 營業權 및 其他 特權은 105萬5千圓에 相當하는 計算으로써 극히 高價라고 아니할 수 없음

그러나 콜브란씨의 要求를 減額調整하여 買收할 경우에는 그 事業의 特性과 將來의 需要增加를 감안한다면 결코 不利하지 않을 것을 確信함

가령 韓國皇室 및 콜브란과 그밖의 1명의 持分을 모두 舍하여 그 代價를 120萬圓으로 調整할 수 있다고 假定하고 買收후의 損益을 推算할 때 多少의 擴張改善費를 투자한다면 別紙 豫算書와 같이 尙 資本金에 대하여 1割의 利益(제 8차年度 부터)을 얻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

買收資金 調達方法으로는 1909년 8월중 韓日瓦斯株式會社의 株式 제 2회 拂入(1株 12圓50錢)을 실시, 여기서 영출한 75萬圓중에서 콜브란씨에 대한 제 1회 支拂金 70萬圓을 지불하고 나머지 作賦支拂金은 借入金으로 充당함과 동시에 美貨社債 50萬圓은 美國에서 借換하거나 또는 國內 借入金으로 상환하며 改善工事に 所要되는 50萬圓 역시 借入金으로 充當할 것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콜브란은 韓美電氣의 일체의 재산과 權利에 대한 代金을 50萬圓의 社債를 포함 192萬5千圓을 要求한데 대하여 韓日瓦斯는 社債포함 170萬圓이면 타당하다고 평가한 것이다.

1902년 韓國政府와의 賣渡交渉당시 콜브란이 제시한 조건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으나 그 시기에 발행된 皇城新聞의 기록을 참조할 때 대개 韓日瓦斯에 要求한 조건과 大同小異한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3) 韓美電氣會社의 資產

한편 이러한 賣買交渉이 進行되고 있는 과정에서 콜브란은 韓日瓦斯에 1909년 6월 1일 현재 韓美電氣의 資產調査書를 제출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資本金 및 債務(單位·錢, 以下同)

株 式	2,000,000.00
第 1 社債(抵當附年利6分)	500,000.00
小額債務(2種)	367.52
純益累計(1904. 8. 1부터 1905. 5월까지)	311,615.75
合 計	2,811,983.27
資 產 및 經 費	
權利 및 財產	2,500,000.00
改善費 및 擴張費	82,880.75
第 1 社債利子支拂累計	83,498.96
豫金 및 現金在高(現金在高2,470,39)	81,033.49
營業未收金(主로 電燈料)	15,481.77
貯藏品在高	28,629.91
石炭在高	18,888.56
保險料前拂	1,569.83
合 計	2,811,983.27
第 1 純益累計 311,615.75錢의 用途	
豫金 및 現金在高(上記小額債務控除)	80,665.97
改善費 및 擴張費	82,880.75
第 1 社債利子支拂累計	83,498.96
營業未收金	15,481.77

貯藏品在庫	28,629.91
石炭在高	18,888.58
保險料前拂(1909. 6월이후 1910년의 1部に 대하여)	1,569.83
合 計	311,615.75

1908년 5월과 1909년 5월의 收入比較

收入之部	1908년 5월	1909년 5월
乘客運賃	15,311.54	13,307.07
貨物運賃	1,112.00	726.05
電 燈 料	8,884.93	9,633.80
動力料金	614.61	752.01
電燈器具貸附收入	2,301.24	844.43
廣告收入	250.00	-
收入利子	-	421.94
雜 收 入	473.50	167.40
合 計	28,937.82	25,852.70

支出之部

電燈器具施設經費	1,819.62	584.04
營業支出	9,103.78	8,662.29
石 炭 代	7,169.32	7,290.78
廣 告 費	67.50	-
保 險 料	238.08	206.42
雜 費	16.50	41.45
合 計	10,525.02	9,067.74

純 益 金

第 2 純益金累計 311,615.75 錢의 年度別表

1904. 8월부터 12월까지	13,082.54
1905년 同	34,151.87
1906년 同	50,648.57
1907년 同	78,672.23
1908년 同	103,715.95
1909년 1월부터 5월까지 5월까지	31,344.59
合 計	311,615.75

1909년 5개월간의 純益에 의거 1개年間의 總純益을 推算하면 75,227,016으로 前年보다 감소함.

總額 170萬圓으로 落着
교섭 2개월만에 契約

(4) 賣買契約의 調印

伊藤統監의 강력한 지시와 前記 竹內 綱의 幕後調整등으로 매매교섭은 급속히 진전되어 교섭개시 2개월만인 1909년 6월 23일에 쌍방이 契約文案을 작성하고 다시 다음날 24일에는 日本 橫濱에 있는 인터내셔널銀行에서 竹內綱등이 立會한 가운데 쌍방이 契約서에 조인함으로써 漢城電氣會社 창설이래 11년만에 서울의 電氣事業은 日本人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계약의 主內容은 韓日瓦斯는 韓美電氣의 일체의 재산과 권리를 社債 50萬원을 포함 170萬圓으로 매
수하되 계약금을 포함하여 現金 70萬圓을 같은해 8월 말일까지 지불하고 나머지 殘金 50萬圓은 年利
6分으로 5년간 분할 상환한다는 것인데 계약서 全文은 다음과 같다.

(韓美電氣會社 賣買契約書)

헨리·콜브란을 甲으로 하고 韓日瓦斯株式會社를 乙로 하여 1909년 6월 24일 다음의 계약을 체결
함

第1條 甲은 韓美電氣會社의 株式의 全部, 즉 1萬株를 今年 6月 1日字의 貸借對照表 記載와 같은
同社 一切의 特許, 權利, 資産, 財産 및 營業과 今年 6月 이후의 營業上의 收益을 포함하여 代金
120萬圓으로 乙 또는 그 指名者에게 讓渡한다.

第2條 甲은 前記한 今年 6月 1日의 貸借對照表에 記載한 差引計算中 不足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補
填하여야 하며 貸倒損 또는 計算錯誤에 대하여 5千圓의 餘裕를 見積, 上記 期日에 살아 있는 資産
의 實價를 14萬圓以上 되도록 한다.

第3條 前記의 양도는 美貨 25萬달러의 第1抵當附 社債를 負擔한채 行한다.

第4條 乙은 契約金으로 金 20萬圓을 本契約 調印과 동시에 甲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第5條 乙은 今年 8月末日 또는 그 以前에 前條의 20萬圓의 契約金을 포함하여 甲에게 지불함과 동
시에 殘金 50萬圓을 각각 10萬圓의 約束어음 5枚로써 甲에게 支拂하고 同어음에는 年 100分의 6
의 利子를 부치며 또한 株式會社 第一銀行의 裏書를 받아 그 第1은 1910年 1日 31日을 支拂期日
로 하며 나머지 어음은 이후 1910年 1月 31日 以後 滿 4年間에 4회로 나누어 每 滿 1年 마
다 지불하여야 한다.

第6條 前記 株券과 會社財産의 引渡는 1909年 8月 31日 또는 그 以前에 50萬圓의 支拂과 앞의 5매
의 어음의 引渡와 동시에 이를 행한다.

第7條 前記 현금지불은 前記 株券과 교환으로 橫濱에서 行하며 5매의 어음은 橫濱 인터내셔널·뱅크
·코프레이션의 銀行店舖에서 지불기로 한다.

단 H·E·콜브란씨 및 S·L·셀먼씨는 會社 清算의 目的으로 無俸給 無報酬로 韓美電氣會社의 取締役
이 될 것을 承諾하였으므로 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하여 前記 株式中 各 1株를 保有할 수 있으나 該
兩氏는 該 2株에 無記名 讓渡裏書를 한 다음 이를 乙에게 任置하기로 한다.

第8條 韓美電氣會社는 1909年 8月 31日 또는 그 以前에 前條에 의한 인수가 있는 다음 早速히 그
全財産과 權利 및 特許를 有効한 讓渡證書에 의하여 乙에게 양도함과 동시에 前條에 기재한 兩人以
외의 電氣會社의 取締役 3人은 乙이 指定하는 3人으로 交代시키기 위하여 辭任할 것. 또한 社長
은 乙로 하여금 指名케 한다.

第9條 콜브란, 보스트위크會社는 前記 財産의 引渡日로부터 6個月間은 2層 複道 西南側에 있는
현재의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다.

第10條 乙은 可及的 조속히 그의 定款을 개정하고 그 목적을 擴張하여 本契約의 實行을 期할 것. 萬
一 上記와 같은 定款改正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乙은 그가 指名하는 신디케트로 하여금 乙에 대신
하여 本契約를 실행할 수 있다.

第11條 乙은 그의 비용으로 檢査役 1人을 韓美電氣會社의 事務所에 파견할 수 있으며 該 檢査役은
會社의 일체의 帳簿, 書類, 計算 및 取支를 閱覽 檢査할 수 있으며 업무의 집행에 간섭할 수 없다.

第12條 取締役은 日本法律의 適用을 받는다.

上記 契約의 證明으로 本契約書 2部를 작성하여 當事者 各 代表者로 하여금 署名케 한다.

콜 브란

韓日瓦斯株式會社 專務取締役 岡崎遠光 本人등은 헨리·콜브란이 前記 契約의 各約款 및 條件을

성실히 履行할 것을 콜브란, 보스트위크, 베로프먼트會社를 代表하여 보증함.

콜브란 (自署)

셀 멘 (自署)

立會人 竹内綱 (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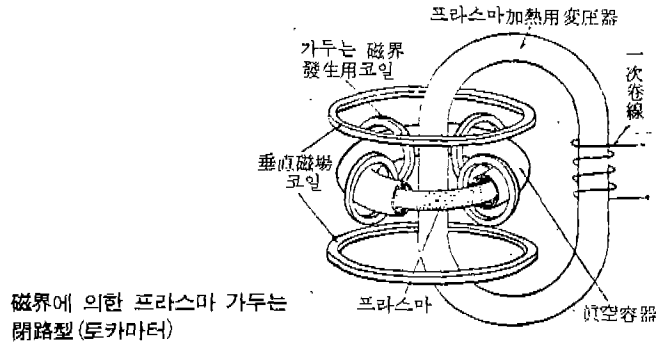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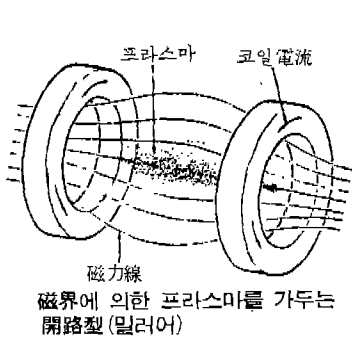
이 계약서 제 7 조 但書에 나오는 H·E·콜브란과 末尾의 保證人으로 서명한 콜브란은 社長인 헨리 콜브란의 子息으로서 그는 당시 韓美電氣會社의 總支配人書記 및 會計主任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그는 S·L·셀멘과 함께 韓美電氣會社의 清算目的을 위하여 韓美電氣의 사업과 全財産의 인수 인계가 끝난 뒤에도 清算日(1909년 9월 15일) 까지 名目上 韓美電氣會社의 重役으로 재임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계약서 제 9 조에 의하여 社長 콜브란등은 인계후에도 6개월동안 종로에 있었던 韓美電氣의 社屋 2층의 그의 종전 사무실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계속) *

* 2 分講座 *

〈原子核 融合의 수수께끼〉 ④

核融合爐 成立의 條件은 무엇인가(2)



熱核融合이 成立되기 위해서는 1 億도와 같은 超高温의 프라스마가 필요하다. 그것을 직접 金屬容器에 넣을 수는 없다. 만약 직접 넣는다고 한다면 프라스마는 순시에 확산하여 容器壁에 접촉하여 壁은 熱에 의해 용해되고 프라스마는 냉각하고 만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金屬容器에 넣은 프라스마의 확산을 막으며 프라스마의 部分과 容器壁 사이에 眞空의 領域을 설치하여 熱적으로 絶緣하는 것이 필요하다.

熱絶緣을 하는 方法에는 다음項에서 소개하는 慣性가두는 方式도 있으나 현재로서 主流을 이루고 있는 것은 磁界에 의한 가두는 方式이다.

프라스마는 이온과 電子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어느 것도 荷電粒子이므로 電磁場을 적당히 배치하면 확산을 막을 수 있다. 電場만으로 가두려고 하면 이온은 플라스, 電子는 마이너스의 電荷를 갖고 있으므로 이온을 가두려고 하면 電子는 거꾸로 밖으로 달아나고 만다. 核融合 反應하는 것은 原子核인 이온쪽이니 만큼 電子는 없어도 되는 것 같이 생각되나, 同符號의 이온뿐이면, 이온사이에는 쿨롱의 反滯力이 생겨 확산하고 만다. 따라서 電子를 포함한 電氣적으로 中和된 이온과 電子 混合體를 가두는 것이 필요하며 그 주체는 磁界쪽에도 있다. 프라스마를 구성하는 이온과 電子는 磁界 쪽에도 있다. 프라스마를 구성하는 이온과 電子는 磁界속에서 旋回운동을 한다. 그 회전방향은 외부에서 가해진 磁界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그 운동에 의해 생기는 電流는 反磁性電流로 되고 있으며 그것과 外部에서 가한 磁界와의 相互作用의 결과 프라스마는 內部를 향해 머무르게 된다. 磁界에 의한 가두는形式은 크게 나누어 開路型和 閉路型으로 분류된다. 대표적인 것을 그림에 표시하나 開路型의 밀러에는 2개의 코일을 平行으로 나란히하여 같은 방향으로 전류를 흘리는 것으로서 磁力線은 닫지않고 있다. 閉路型의 토크마터는 環狀의 磁力線이 도넛形에 모여 形成되고 있으며 磁力線이 닫히고 있으므로 프라스마가 磁力線에 따라 움직여도 밖으로 나올 수 없는 것이 長點이다. 가장 有望하다고 보여지는 토크마터는 토우러스형으로 後者에 속한다. *